정답 및 해설

2025학년도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 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7개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해당 자료는 EBSi에서만 제공됩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윤리와 사상 정답

1	④	2	③	3	①	4	③	5	④
6	③	7	②	8	①	9	③	10	③
11	②	12	④	13	①	14	⑤	15	⑤
16	③	17	②	18	④	19	②	20	⑤

해설

1. [출제의도] 공자의 사상 이해하기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공자이다. 공자는 인을 실현하기 위해 사욕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해야 한다[克己復禮]고 보았다. 또한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걸맞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정명(正名)을 주장하였다.

2. [출제의도] 베이컨과 데카르트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베이컨, 을은 데카르트이다. 베이컨은 실험과 지성을 중시하는 참된 귀납법을 통해 자연에 대한 유용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절대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지식인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진리를 철학의 제1원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 [출제의도] 맹자와 순자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하며, 하늘이 부여한 선한 마음인 사단(四端)을 확충하여 본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순자는 인위를 통해 악한 본성을 선하게 교화시켜야 한다고 보았으며, 백성들 간의 쟁탈을 막기 위해 성왕이 제정한 예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출제의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으로 구분하고 지성적 덕은 주로 교육을 통해 길러지는 데 비해, 품성적 덕은 중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실천하여 형성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의지의 나약함으로 인해 앎이 덕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강조하였다.

5. [출제의도] 아퀴나스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퀴나스이다. 아퀴나스는 자연법이 영원법에 기초하듯 실정법은 자연법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실정법이 자연법에 위배되는 경우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보고, 신의 은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6. [출제의도] 이이와 이황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이이, 을은 이황이다. 이이는 발하는 것은 기이고 발하는 까닭은 이라고 보았다. 또한 그는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한 감정이라고 보고, 칠정 중 선한 감정은 사단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황은 이와 기가 모두 발할 수 있다는 이기호발(理氣互發)을 주장하며,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이를 따르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탄 것으로 보았다.

7. [출제의도]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에픽테토스이다. 에피쿠로스는 적극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하여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에픽테토스는 신과 자연의 본성인 이성을 따름으로써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정념에 초연한 자세로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8. [출제의도] 석가모니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석가모니는 인연(因緣)에 의해 생겨난 모든 존재와 현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삼독(三毒), 즉 탐욕[貪], 분노[瞋], 어리석음[癡]으로부터 괴로움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여 고통이 없는 경지인 열반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9. [출제의도] 스피노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스피노자이다. 스피노자는 신(神)이 초월적 창조자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이며 유일한 실체라고 보았다. 또한 그는 이성을 온전히 발휘하여 만물의 궁극적 원인인 신적 본성의 필연성을 인식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10. [출제의도] 동학과 위정척사 사상 비교하기

갑은 최제우, 을은 이항로이다. 동학의 입장에서는 한울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신분과 성별의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정척사 사상의 입장에서는 유교적 가치 체계와 질서는 지키고 서양의 문물과 가치는 배척해야 한다고 보았다.

11. [출제의도] 왕수인과 주희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왕수인, 을은 주희이다. 왕수인은 마음 밖에는 어떠한 이치도 없다고 보았다. 주희는 만물에 이치[理]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고,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탐구함으로써 앎을 지극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모두 사사로운 욕망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해야 한다[存天理去人欲]고 보았다.

12. [출제의도] 칸트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나오는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연적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없다고 보았다.

13. [출제의도] 장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장자이다. 장자는 도(道)에 따라 살아가면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모든 사물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보고, 제물(齊物)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수양 방법으로 좌망(坐忘)과 심재(心齋)를 제시하였다.

14. [출제의도] 정약용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인간이 금수(禽獸)와 달리 하늘로부터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영지의 기호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인간이 선을 행할 수도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자주지권(自主之權)이 있다고 보았다.

15. [출제의도] 흄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흄이다. 흄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을 도덕성의 기초라고 보았으며, 사회적으로 유익한 것에 시인의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지닌 공감 능력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도덕적 구별과 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보면서, 이성은 도덕적 행위의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16. [출제의도]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 을은 소크라테스이다. 프로타고라스는 진리를 상대적인 것으로 보아 각 개인의 감각적 경험이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의 상대주의 진리관을 비판하고,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여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7. [출제의도] 플라톤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를 인식한 철학자가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국가의 구성원 모두가 절제의 덕을 발휘해야 한다고 보고, 각자가 타고난 성향에 적합한 한 가지 직분에 종사할 때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8. [출제의도] 노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노자이다. 노자는 도(道)를 천지 만물의 근원으로서 인간의 감각 경험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인위적인 규범이나 제도가 사회 혼란의 원인이라고 보고, 자연의 도에 따라 살아가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삶을 강조하였다.

19. [출제의도] 원효와 지눌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원효, 을은 지눌이다. 원효는 더러움과 깨끗함, 참됨과 거짓됨 등 일체의 이원적 대립을 초월하는 일심(一心)을 강조하였다. 또한 여러 불교 종파의 주장들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조화시켜야 한다는 화쟁(和諍)을 주장하였다. 지눌은 단박에 깨달은 뒤에도 습기(習氣)를 점진적으로 소멸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고,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0. [출제의도] 벤담과 밀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벤담, 을은 밀이다.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하며, 모든 쾌락에는 오직 양적 차이만 있음을 주장하였다. 밀은 교양 있는 인간이라면 고상한 기능에서 나오는 쾌락을 인간의 동물적 본성으로 느끼는 쾌락보다 더 선호한다고 보고, 쾌락의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